光州日報

제1805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13일 (음력 4월 9일) 화요일

與 정부고시 강행 … 野 장관 해임안·헌소 제출

쇠고기 정국 '충돌'

13·14일 국회 FTA 청문회 격돌 예고

정부가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강행키로 한데 대해 야권이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헌법소원 및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가 쇠고기 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청문회도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어떤 위법 요소도 없다고 판단, 야당의 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입안 예고가 13일 끝나면 의견을 검토해 예정대로 15일 장관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12일 9명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현지 점검단을 미국을 보내 31개 작업장의 위생, 검역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주 당력을 집중, 야당의 총공세에 대응한다는 각오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12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청원권, 자기결정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주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또 "장관 고시는 대한민국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발령된 위법한 고시"라며 "경제·통상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그대로 고시하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마찰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문회 첫날인 13일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며, 14일에는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종교간 벽 허물기 12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음악제'.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교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정주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장관철 무진교회 목사,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 김현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장, 김정유 원음방송사장. 〈관련기사 9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출 늘어도 사람 안 뽑는다"

광주·전남 기업 '고용없는 성장' 확산

광주·전남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나도 사람을 뽑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돼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경제계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들의 매출은 최근 3년(2005~2007년) 동안 크게 늘어난 반면 고용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의 매출은 4조3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28% 성장했으나, 고용 인원은 3년째 6천700여명 선에 묶여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매출은 1조7천631억원에서 2조293억원으로 15% 신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자연 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채 4천5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삼성광주전자와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매출은 대폭 확대된 반면 고용은 소폭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정은 광주지역 제조업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하남산단 입주업체는 2005년 889개에서 2007년 923개로 34개(3.8%)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8조3천228억원에서 9조3천813억원으로 1조원(12.7%)이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고용인원은 2만6천447명에서 2만4천221명으로 무려 2천226명(8.4%)이 줄었다. 이 중 남자가 2만279명→1만8천639명(-8.0%), 여자가 6천168명→5천582명(-9.5%)으로 감소했다.

〈2면으로 계속〉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社告

제32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김종오 감사 '세계 경제환경과 광주의 미래'

1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5일 오후 5시30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 32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종오 한국전력거래소 감사가 강사로 나서 '세계 경제환경과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5월 15일(목) 오후 5시30분
- 장소 : 광주 첨단지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제 : 세계 경제환경과 광주의 미래
- 강사 : 김종오 한국전력거래소 감사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정부, 내년 예산 10% 감축·SOC 투자 축소

광주·전남 현안 사업 차질

내년 예산을 10% 감축하고 신규사업 추진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규·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2009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예산(256조1천721억)보다 18조원 가량을 줄일 방침"이라며 "지자체도 내년 예산을 10% 긴축 편성 하라"고 권고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7개 SOC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및 36개 신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 주요 SOC사업인 ▲진곡산단 도로 개설(1천60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도로확장(1천124억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602억원) ▲영산강·황룡강 하천 정비사업(498억원) 등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남도의 경우도 무안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등 주요 SOC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도가 국고 지원을 요청한 2009년도 SOC 관련 사업은 모두 103건에 4조6천854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32건에 3천518억원 규모다.

주요 SOC 신규 사업으로는 ▲무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9㎞(232억원)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3.0㎞(50억원)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